



RaonAtti in Pangasinan

반을 지나, 11월 보고서

2013.11.1-11.30

10기 필리핀팀
김보경. 김연. 박진경. 선다희. 우민아.

RaonAtti



목차

- A. 김치는 팡Y 품안에
- B. 중간평가
- C. 라온아띠 Project : Dumpsite / BRGY. Pugaro
- D. 고민과 토론
- E. School to school
- F. Jun의 태권도 수업
- G. 먹고 자고 노는 이야기
- H. 각자 쓰는 글, 반을 지냈다.
- I. 우리의 다음 두 달은.
- J. 가족사진

활동달력

2013 November **11**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홈스테이	2 -홈스테이
3 -Dumpsite Survey -Danielle 가족 생일 파티	4 -보고서 회의 -Bible Sharing -Dumpsite Project 방향성 회의	5 -Pugaro Atti Klase 첫 날 -Dumpsite -Survey Review	6 -Meeting with Head of DWMD (다구판시 쓰레기 관리 부서)	7 -Pugaro Atti Klase -YMCA of Baguio 총장 만남	8 -Visa 연장 -보고서 작성	9 -보고서 작성 -휴식
10 -개인 시간 -Arneeth 졸업파티 -다음주 준비	11 -Pugaro Atti Klase -Bible Sharing -School to School 기획	12 -Dumpsite -태권도 수업 at Pugaro	13 -School to School 자료 제작 및 준비	14 -Pugaro Klase -School to School : DCNHS -Reflection -중간평가 준비	15 -중간평가 준비 -중간평가단 맞이	16 -DCNHS Media Art 선생님 미팅 -중간평가:활동지 방문(Dumpsite/ Pugaro/Malasiqui)
17 -중간평가회 -개인 면담 -동민 간사님 배웅	18 -김장, 김치나눔 -영상편지 -유철 간사님 배웅	19 -Dumpsite -Coordinator Alen 첫 회의	20 -RaonAtti Project 회의 with Alen, Jimmy	21 -Pugaro Atti Klase -Projecct 회의 및 활동 준비	22 -San Roque Dam 관광 -RaonAtti 회의 및 수업 준비	23 -Dumpsite -RaonAtt Project Meeting
24 -개인 시간	25 -Pugaro Atti Klase -Staff Meeting -RaonAtti Project Meeting with Alen	26 -Dumpsite -Aurora 생일 -라온아띠 회의	27 - 휴식 - 보고서 회의	28 -Pugaro Atti Klase -보고서 회의	29 -Dumpsite -Reflection with Jimmy	30 -휴식 -보고서 회의

A. 김치는 팡Y 품안에

“김치 먹고 싶다.”

팡가시난에서 지낸 지 두달여.. 팡가시난 Y 식구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다. 김치 만들 줄 아니? 김치 만들어 줄래? 그 때마다 “Sandalilang po.(기다려주세요.)” 를 이야기 했다. 김치.. 만들어 볼까?

마침 안양 Y의 박윤희 간사님께서 중간평가로 방문하시는 김유철 간사님 편으로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시기로 하셔서 우리는 멸치액젓과 고춧가루를 부탁드렸다. 액젓과 고춧가루를 보았을 때 반가움도 잠시.. 어떻게 만들지..? 그 때 등장한 우리의 구세주!!!!는 바로바로 Sir.김치(팡Y에서 안양Y 김유철 간사님의 애칭)다. 유철간사님께서 안양YMCA에서 10년 간이나 진행 해 온 '사랑의 김장 나누기' 배테랑으로서 중간평가 마지막 날 아띠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고 떠나기로 하셨다.

김치는 말이야.. 재료가 중요해.

라는 유철 간사님의 말씀에 배추, 파, 마늘 등 김장에 필요한 재료와 걸절이에 먹을 보쌈 고기까지! 아띠들이 항상 아침 찬거리를 사러 가는 시장으로 장을 보러 갔고 유철 간사님은 꼼꼼하게 재료들을 고르셨다.



A. 김치는 팡Y 품안에

수다수다 수다방.

장을 보고 아띠 하우스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다. 유철쌤의 진두지휘 아래 각자 배추 절이기, 파와 무생채 썰기, 마늘 빻기, 풀 썰기, 고기 삶기 등을 하였다.



우리내 어머니들이 김장을 담그며 도란 도란 이야기를 나누듯 우리도 각자 재료를 다듬으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지금 쫄 쌀쌀한 한국 김장철에 후덥지근한 필리핀에서 김장을 하니 신기하다.” “김치만 있으면 밥 열 공기는 후딱 해치울 수 있을 거 같아요” “필리핀에서 생각보다 김치가 그리진 않았는데 막상 김장을 하니 너무 먹고 싶어요.” “우리집 말루가 김치 진짜 좋아하는데.. 숨겨놔야겠어.”

“근데 유철쌤! 김장은 언제 배우셨어요?” “나? 나 ‘사랑의 김장 나누기’ 10년 지기야~”
오호라! 그렇다면 안양 YMCA의 ‘사랑의 김장 나누기’ 이야기를 들어볼까?

A. 김치는 팡Y 품안에

안양 YMCA '사랑의 김장 나누기'

안양YMCA에서 10년 동안 진행 되고 있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는 매년 김장철에 1년 간 모금한 기금으로 살림터(생협)를 통해 김장 재료를 준비하고, 안양YMCA와 주민 및 자원봉사자 100여명의 손이 재료 다듬기, 배추 절이기, 김치 소 만들기 등 김장의 전 과정에 참여해 연 1천포기의 김치를 만들어 내는 나눔 행사이다. 이렇게 만든 김치를 지역 노인가정, 저소득 가정 등 김장을 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안양 YMCA의 10 번째 '사랑의 김장 나누기' 는 올해 11월 30일에 진행 되었다고 한다. 지역 교회와 시민단체, 주민센터가 함께 참여해 마을단위 민관협치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김치는 손 맛이지. 재료 손질을 모두 끝 낸 뒤 김치 소를 만들기 시작했다. 안양 YMCA 1층 살림터(생협)에서 공수한 고춧가루와 액젓, 풀을 넣고 다듬은 재료를 모두 버무렸다. 김치 소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포효하기 시작했다. “유철쌤~! 간 좀 봐도 될까요?” “저도 간 보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요! 간 볼래요!”



A, 김치는 팜Y 품안에



숨 죽은 배추에 김치 소를 꼼꼼히 넣어 준 뒤 김장을 마무리 했다. 든든했다. 김치만 있다면 무서울 게 없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고 우린 김치를 냉장고에 고이 모셨다.



A. 김치는 팡Y 품안에

‘사랑의 김장 나누기’ in Pangasinan YMCA

우리가 만든 김치와 보쌈을 가지고 팡가시난 YMCA로 출발! Y식구들과 우리가 만든 김치와 보쌈으로 저녁을 함께 먹기로 하였다.



흰 쌀밥에 보쌈 고기 한 덩이와 김치 한조각. 카~~ 김치는 인기 폭발 이었다. 남으면 어쩌나 하고 가져 갔던 김치는 금방 동이 나버렸고 오히려 모자라 늦게 온 사람은 김치 국물에 밥을 비벼 먹어야했다. Kuya Jimmy 를 비롯하여 모두들 연신 “마싸랍(맛있다)” 과 “I love Kimchi” 를 연발하며 맛있는 저녁을 함께 했다.

A. 김치는 팡Y 품안에

아띠 하우스의 풍요와 몰락

1. 김치 앞에서 밥은 사치다. 김치 본연의 맛을 느끼자.
2. 아침으로 김치를 먹기위해 아띠 하우스에서 숙식하는 자원봉사자 속출.
3. 심심해? 심심하면 냉장고 열어서 김치 한입 집어먹어.
4. 국물도 아깝다! 김치 국물에 밥 비벼 먹기.
5. 식 전 에티파이저로 김치 한 조각, 식 후 입 가심으로 김치 한 조각.
6. 아띠들과 필리피노들의 밥상에서 김치 전쟁.
7. 김치 꼭다리도 아깝다. 씹어먹자.
8. 유철쌤이 말하시기를 “아마 익으면 못 먹을거야.” 이게 웬걸. 익어서 더 맛있다는.
9. 말루의 김치국은 끓이지도 않았는데 혼자 김치국 마시고 김치국이 없다며 빠져서 밥 안먹기.



■ ■ ■



2달은 먹겠다는 말루의 호언장담에 코웃음 치듯 2주만에 그렇게 우리의 김치는 사라졌다.

김치야... 그동안 행복했어.

FIN.



1

김장하는 아띠집에 놀러온 옆집 남매들.



2

예압. 브라우니 1개 획득.



3

음 오로라 누나가 또 맛난 걸 주는 듯.



4

?!?!?!?



5

애들아 이거 마사람! 먹어봐!



6

형 저거 뭐야.. 무서웁..



7

김치! 마사람! 먹어봐!



8

허영..

마사람?... 흠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9

아 놔. 오로라 누나. -_-+



10

무울.....



11

하아 김취 겁나게 매워브러잉.

김치귀신 at Malued

B, 중간평가

오셨다!!(11월 15일) 기다렸던 정동민 간사님과 김유철 간사님은 15일 금요일 저녁에 도착하셨다.

간사님 오셨다는 소식에 아이들은 노란 단복을 입고 다들 뛰어나가 이제 막 뱅에서 내리신 두 간사님을 포옹으로 환영해 드렸다. 다들 반가움에 어쩔 줄 몰랐다. YMCA 스태프들, 이사진, 자원봉사자들 또한 진심으로 두 분을 환영해 주었고, 이후 맛난 저녁식사, 간사님들께서 한국에서 가져오신 각종 선물전달^^, 그리고 정겨운 수다가 이어졌다. 또 우리가 필리핀에 처음 도착한 날 우리를 가장 먼저 맞아주셨던 필리핀 YMCA 연맹 직원 Ate Marcel이 같이 오셔서 모두 함께 단란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라운아피 한국 사무국의 정동민 간사님, 안양 YMCA의 김유철 간사님과 함께 팡가시안 YMCA 이사회 저녁식사에 참여했다. / 회포 및 뒷풀이!

B, 중간평가

사이트 방문(11월 16일) 두 간사님이 도착하신 다음 날인 16일은 그 동안 아띠들이 활동했던 곳, 활동할 곳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채워졌다. 평가단과 라온아띠가 함께 활동지를 둘러보고, 단원들의 활동 모습을 평가하고, 안양 YMCA 간사님의 경우 안양과의 연대 지점을 찾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일정이었다.

Bonuan Dumpsite

: 아침식사 후 Y에서 지프니를 타고 덤프사이트에 도착했다. 라온아띠는 평소처럼 마을로 들어가 주민들을 만나고 교육활동 장소인 Bluehouse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평가단도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단원들과 함께했다. 아이들과 그 동안 활동하면서 했던 여러가지 놀아들을 하며 어울렸다. 연맹의 Ate Marcel은 아이들에게 꼭 마실것과 간식을 나누어 주고 활동할 것을 당부, 조언 하셨다.

Brgy. Pugaro

: 덤프사이트에서 시내로 돌아온 후 점심을 먹은 뒤 바로 보트를 타고 푸가로로 출발했다. 라온아띠가 주로 활동하는 곳인 데이케어 센터는 오후에는 수업이 없어 평가단에게 우리의 활동을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바로 옆에 있는 Sewing Association을 방문했다. 언제나 단원들을 반기는 마을 아이들과 놀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Brgy. Canan Sur, Malasiqui

: 우리가 12월 말부터 지내면서 활동하게 될 평화로운 농촌 마을 Canan Sur. 느지막한 오후에 도착했다. 시끌벅적한 다구판과는 다른 평화로움이 참 반갑게 느껴졌다. 바랑가이 캡틴에게 인사드린 후 몰려든 마을 아이들과 다 함께 동네 한바퀴를 돌았다. 막 탄 과일을 따먹기도 했다. 라온아띠의 주요 활동처가 될 데이케어도 방문했다. 그렇게 우리의 1월 생활을 가능해본 뒤 다구판으로 돌아왔다.



B, 중간평가

중간 평가회(11월 17일)

17일 아침에는 필리핀 YMCA 연맹 사무총장님인 Kuya Pabs를 뵈 수 있었다. 최근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Tacloban City 관련 일로 Cebu YMCA를 방문하고 바로 오는 길이라고 하셨다.

중간평가는 당초 예정됐던 정오에서 오후 2시로 미루어졌다. 정동민 간사님, 김유철 간사님, 연맹총장님 Pabs, 평가시안 Y 총장님 Jimmy,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간평가는 시작되었다. 라온아띠는 먼저 라온아띠 소개인 '빠빠빠' 댄스로 시작을 알렸고, 우리의 활동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비디오(덤프사이트 방문하는 과정을 찍음)를 상영하였다. 이후 2달 반 동안 있었던 라온아띠의 생활, 활동,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라온아띠의 자가평가 내용 발표를 2개국어로 진행하였다. 그 동안의 라온아띠와 YMCA의 모습들, 좋았던 점과 고쳐야 할 점, 각자가 느꼈던 점 등을 최대한 녹여낸 발표였다(흠이 있었다면 예정보다 발표가 훨씬 길어져 2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는 점..^^)

라온아띠의 발표 이후에는 발표를 들은 분들의 평가와 제안 등등이 있었다. 한국에서 오신 두 간사님과 연맹총장님 Pabs, 평가시안 Y 총장님 Jimmy,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코디네이터가 되기로 한 Allen 등이 평가와 조언을 해 주셨다.



B, 중간평가

그 외의 이야기

술자리 : 16일, 두 간사님과 라온아띠 집에서 함께한 조출한 과자파티(맥주를 곁들인)에서 우리는 그 동안 있었던 일과 마음 속 이야기를, 드디어! 허심탄회하게 풀어놓을 수 있었다. 파견된 이후로 항상 아띠 내부의 논의와 통역을 거쳐 진행되던 대화와 의사전달이 간사님과 함께한 대화의 자리에선 너무나 편하게 진행되었다.

김치 : 동민간사님이 떠나시고 유철간사님과 함께한 하루, 우리는 라온아띠 하우스에서 김치를 담갔다. 그 과정의 벽참과 감동을 중간평가 이야기에 다 담을 수가 없었기에 김치 이야기는 따로 다루었다. ^ ^



중간 평가 이후 바뀐 것들

코디네이터 : 지난 2달 반 동안의 필리핀 팀의 특징이라 한다면 이렇다할 코디네이터가 없다는 것이었다. 거의 모든 활동을 라온아띠가 고민하고 기획한 후 실행해야 했고, 항상 정보 부족, 노하우 부족, 실행력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생활 조율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중간평가 자리에서 라온아띠는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을 분명히 전달했고, 이후 자원봉사자 Allen이 라온아띠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임명되면서 이후 활동들이 계획과 실행이 한결 수월해졌다.

우리의 태도 : 그 동안 필리핀 라온아띠들은 생활/활동 면에서 불편한 일이 있거나 제안할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팀 안, 밖으로 마찰을 빚는 것에 대한 걱정, 언어의 장벽 등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다. 중간평가 기간 동안 간사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비로소 라온아띠 내에서 이러한 태도에 대한 공감감이 이루어졌다. 이후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YMCA에 이전보다는 훨씬 편한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평가시난으로 파견된 첫 기수이기에 또한 중요한 일이었다. YMCA와 라온아띠의 관계, 서로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확립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또 일 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팀 안에서 소통과 공감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심하기로 했다.

FIN.

c. **라운아띠 Project**

I. **Dumpsite in Tongdaligan Beach, Bonuan**

Brgy. Boquig

Place for Dumping
Garbages

Accidentally
located

Tongdaligan 해변가

60years old



c. 라온아띠 Project

1. 덤프사이트 : 활동내용

- 헤드미팅 / 서베이
- School to School
- 아띠클라세 / 씻기, 치료하기 / 간식 나눔

A. Dagupan City Waste Management Department(DWMD) Head Meeting

- 11월 6일, Dagupan City 정부의 쓰레기를 관리하는 DWMD의 총책임자인 Ronaldo De Guzman씨와 Dumpsite에 관한 미팅을 가졌다. 그는 시의 재해를 관리하는 CDRRCM 부서도 함께 맡고 있었다. 두 부서의 Technical Working Group의 Head인 Melyken R. Bauzon씨가 회의에 동석했다. 그녀는 Dumpsite 관련 업무를 10년간 맡아온 직원이다.

- Meeting의 목적은 (A) 라온아띠가 지난 달 말 그랬던 Dumpsite에서의 교육, 의료, 환경개선을 아우르는 프로젝트 청사진에 관해 논의하기 위함, (B) 그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던 Dumpsite 거주민들에 대한 라온아띠의 시각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조언 얻기, 그리고 (C) Dagupan City의 쓰레기 관리와 Dumpsite의 전반적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 이었다.

- 라온아띠가 계획한 전체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두고 Head의 피드백과 의견 그리고 협조사항을 들었고, 라온아띠의 여러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Bonuan 해변에 Dumpsite가 형성된 역사, 시 정부의 Dumpsite와 그곳에 (불법)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시각, 시의 쓰레기 관리 구조, Dumpsite에 대한 시 정부 (와 필리핀 정부)의 정책과 이후 계획 등 현장에서 알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 뿐만 아니라 라온아띠의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도움과 조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c. **라온아띠 Project**

Bonuan Dumpsite에 대한 DWMD의 시각

A. Dumpsite

점점 사라져야 한다.

환경 고려한 쓰레기 처리 체계, 시설 도입으로 점점 site 면적 줄이고,
Tree Park 확장으로 유해물질 유출을 최소화 하며 점차 공원화.

B. Residence in Dumpsite

사람들이 살지 않아야 정상이다.

하지만 Source of Income을 따라 등지를 뜬 사람들.
장기적인 이주 계획 고려, Site 바깥에서 대안 생계 마련 도모.



c. 라온아띠 Project

1. 덤프사이트 : 활동내용

- 헤드미팅 / 서베이
- School to School
- 아띠클라세 / 씻기, 치료하기 / 간식 나눔

B. Dumpsite 주민 서베이

- Dumpsite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대해 더 알아야 했고, 다른 기관에 기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Data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했다.

- 11월 3일, SKY 멤버들과 함께 Dumpsite 거주자 Survey를 시행했다. 질문은 가족 구성원 기본 신상, 의료, 교육, 식생활, 일과 소득, Dumpsite 거주와 생계수단에 대한 만족도, 복지 수혜, 가족의 역사를 큰 항목으로 두었다.

- 대부분의 가족이 Survey에 응했고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Dumpsite에 거주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생활 환경은 어떤지, 삶의 만족도나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Dumpsite에서 친구가 된 사람들의 가족 관계, 정확한 나이, Survey 응답을 대조할 수 있게 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이 후에 여태까지 꾸준히 보충해온 조사에 따르면 Bonuan Dumpsite에는 두개의 Compound가 있고, 약 31 가정이 나뉘어 살고 있다. 31가정 중에는 단일 가족도 있고 친족, 결혼관계등으로 엮인 가정들이 많으며, 젊은 커플부터 다 자녀 대가족까지 다양한 구성의 가족이 있다. 가장 오래 산 가족은 30년 가장 최근에 들어 온 가족은 2개월 째 Dumpsite에서 거주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다.

- 교육 수준은 대체로 열악하며 의료도 충분하지 않지만 긴급한 질병에는 대부분의 가족이 병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식생활은 YMCA와 라온아띠의 예상처럼 심각하게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때로 혹은 자주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가족들이 있었다. 소득 수준(그에 따라 생활 수준 역시) 가족별로 천차만별 이었지만 대체로 소득과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정부가 차상위 계층에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인 4P와 보험 혜택인 Philhealth는 대부분의 가족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정부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겼다.

+ 서베이 당일부터 School to School 프로그램 등 지역에 Dumpsite를 알리기 위한 비디오와 사진 촬영을 시작했다.



c. 라온아띠 Project

Dumpsite Project 방향설정

Dumpsite,
점차 없애 나가야 하지만
지금, ‘사람이 살고있다.’



Difficulties of Residences in Bonuan Dumpsite



적은 소득 /
의료를 접하기힘듦
/ 위생환경
생활용수 /
/ child Labor

꼭 해결해야하는 어려움들 중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c. 라온아띠 Project

Dumpsite Project 방향설정

꼭 필요한 것들 :

Care for Children

Inspiring

기초의료



c. 라온아띠 Project

1. 덤프사이트 : 활동내용

- 헤드미팅 / 서베이
- School to School
- 아띠클라세 / 씻기, 치료하기 / 간식 나눔

C. School to School

- 라온아띠는 여러 사람을 만나고 조사하며 Dumpsite의 형성 원인을 : 만들어지는 쓰레기의 양이 많은 것, 부족한 쓰레기 관리 시스템, 분리수거를 거의 하지 않는 문화로 진단했다. 또 Bonuan Dumpsite의 문제점을 : 바다입지로부터 기인하는 해양오염, 토양오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아닌 그냥 쌓아두는 장소라는 점, 파리 등 해충 문제로 정리했다.
- 지역의 대다수의 주민들은 Bonuan 해변에 Dagupan의 모든 쓰레기가 버려지는 Dumpsite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이상의 관심과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 Dumpsite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를 만드는 것 이외에도, Dumpsite의 존재 자체를 다루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중 라온아띠가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지역 사람들에게 이를 둘러싼 문제를 널리 알리고 가능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생각했다. 그 일환으로 라온아띠와 팡가시난 YMCA의 특성을 십분 살려 지역 학교 방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 RaonAtti School to School : Waste, Health and Order라는 제목으로 지역 학교를 방문해, 쓰레기 문제, 분리수거 실천, Dumpsite 알리기, 라온아띠의 Project 알리기, 라온아띠 Project에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기획했다.
- 11월 13일에 DCNHS에서 첫 School to School을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c. 라온아띠 Project

1. 덤프사이트 : 활동내용

- 헤드미팅 / 서베이
- School to School
- 아띠클라세 / 씻기, 치료하기 / 간식 나눔

D. Site 방문 프로그램

- 시행착오를 통해 매주 화, 금 오전 9시-12시로 Dumpsite 방문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비정기 방문을 통해 단원별 부가적인 활동을 진행했다. 정기 방문에서는 위생 관리, 상처치료, 간식 나눔, 마을 Data 수집 등의 활동이 진행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거주 아동 우선, 그리고 찾아오거나 요청하는 모든 연령의 사람이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 때마다 자원하는 YMCA Staff와 Volunteer들이 동행해 진행을 돕는다.

<Atti Klase>

- 10월 중순부터 진행한 Atti Klase를 계속 진행했다. 10월에는 Atti Klase가 시작될 수 있게 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11월에는 정기적인 일정으로 만드는 것, 아이들의 반응을 통해 수업 방식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주가 되었다. 또 몇몇 여성들의 개인적 요청이 있었던 영어 공부를 모여서 하는 수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

- 중간평가를 통해 놀이 위주의 활동에서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업 방향을 수정했으며, 아동 수업의 연령을 분리했다. 7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알파벳, 숫자 등을 가르치고, 8세 이상은 조금 더 나아간 영어를 수업했다. 취학 연령의 아동이 모두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이 구분이 정확하게 학습 수준에 적용되지 않는 나뉘어진 그룹 안에서 아동 별 맞춤형의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 성인 영어 수업은 인력 부족 등으로 큰 진전이 없어 아쉬운 상황이다.



c. 라온아띠 Project

1. 덤프사이트 : 활동내용

- 헤드미팅 / 서베이
- School to School
- 아띠클라세 / 씻기, 치료하기 / 간식 나눔

D-2. Site 방문 프로그램

<위생 관리와 간식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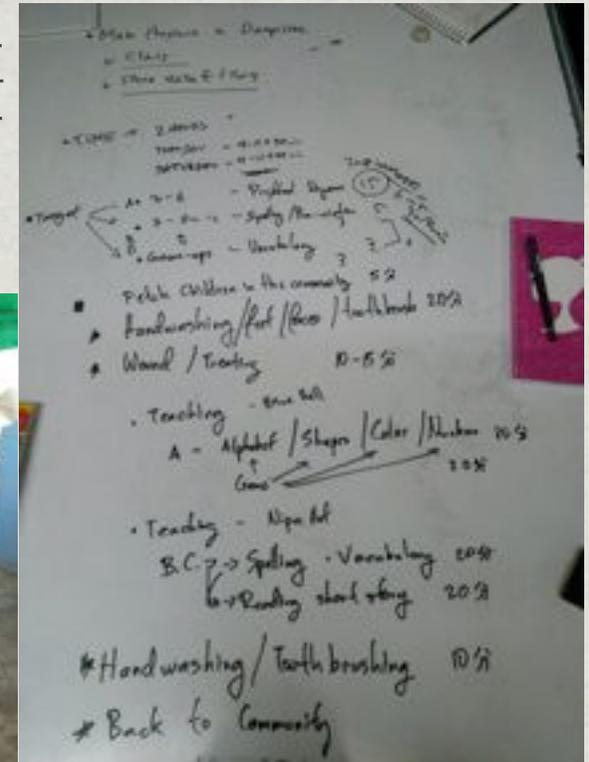
- 중간 평가의 논의를 통해 위생 관리 활동과 상처치료, 간식 나눔을 시작했다. Dumpsite 방문과 함께 아동들과 손, 발, 얼굴을 씻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기본 의약품으로 상처를 치료하고, 아동의 손 발톱을 관리한 후 수업을 시작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아동 + Waste Picking을 하는 주민들과 함께 물과 비스킷을 나누어 먹었다. 많은 아이들의 피부 질환과 상처가 호전되고 있다. 간식 나눔 역시 라온아띠와 주민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에 미소를 더욱 더해지게 되었다.

<마을 정보 수집>

- 중간 평가 이후 평가시난 라온아띠 첫 기수의 또 다른 목표를 설정했다. 마을 주민들에 대한 정보와, 이해, 스토리를 자료화 하는 것이다. Community 이해와 관계맺기의 방식, 팀원 간 - YMCA 스태프와의 더욱 원활한 활동내용 공유, 다음 기수가 Dumpsite와 새로 만날 때 예상되는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자료 수립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씻기와 상처치료 후 아동 Atti Klase가 진행되는 동안 정보 수집 역할을 맡은 단원이 마을을 다니며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여러가지 형태와 목적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또 매일 활동지에 다녀온 후 모든 팀원이 경험을 공유하고 그 내용을 자료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 Atti Klase에 참여하는 아동 카드 / 수와 현황을 이야기하는 정량적인 Data / 프로그램 진행 기록 / 마을의 다양한 스토리를 알고 기록하고 있다.



c. 라온아띠 Project

1. 덤프사이트 : 활동내용
- 헤드미팅 / 서베이
 - School to School
 - 아띠클라세 / 씻기, 치료하기 / 간식 나눔

E. 친구가 되어 :)



c. 라온아띠 Project

2. Brgy. Pugaro



c. 라온아띠 Project

2. 푸가로 : 활동내용
- Day Care Center 보조
- 바랑가이 주민들 만나기
평가와 제안 질문점

활동내용

A. Pugaro Daycare Center 보조

- 매주 월, 목 / 10:00-11:30
- 총원 63명 중 등원하는 3-5세 아이들을 두 Batch로 나누어 수업
- 수업 내용 : 몸놀이, 종이접기, 그림그리기, 플래시카드로 알파벳, 숫자, 모양, 색상 익히기 등
- 수업 전 후로 신나게 놀아주기!



c. 라온아띠 Project

2. 추가로 : 활동내용
- Day Care Center 보조
- 바랑가이 주민들 만나기
평가와 제안 질문점

활동내용

B. 주민들과 만나기

- 데이케어를 중심으로 Mother's Club, 청소년 등 주민들과 어울리며 친구가 되고있다.



c. 라온아띠 Project

2. 푸가로 : 활동내용
- Day Care Center 보조
 - 바랑가이 주민들 만나기
평가와 제안 질문점

중간평가 중 Pugaro 활동

Site 평가

- 작은 섬 마을. Mothers Club, Sewing Association, 정수 시설 등 좋은 커뮤니티 사업의 예시가 있어 잘 보고 배울 수 있었다.
- 라온아띠가 가서 마을의 현실을 보고, 정보와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 마련 및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하는 것 힘든 일이었다.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고민 유익했으나 효율적이지 않았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문제를 위해 문제를 찾는 느낌. Y가 지역에 대한 문제 인식이나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 활동가적인 역할이 세팅되었다. 하지만 기대한 역할을 수행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 데이케어 :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을 다 돌보기 너무 힘들어 라온아띠가 돕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지 않고, material이 부족한 것이지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다. 데이케어 아동들 형제자매, 부모님에게 잘 돌봄받고 있는 것 같다.

Project 평가

- 확실한 방향성 혹은 플랜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직접적 활동 시작하는 것을 주저한 것.
- Pugaro 환경에서 아띠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파악을 빨리 하지 못했던 점.
- 아직도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것.
- 터 닻기 : 이 곳에서 뭘 할지를 잘 보는 활동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음.
관계맺기도 아직 그리 성공적이지 못함.

c. 라온아띠 Project

2. 푸가로 : 활동내용
- Day Care Center 보조
- 바랑가이 주민들 만나기
평가와 제안 질문점

중간평가 중 Pugaro 활동

제안

- 데이케어 : 마을에 데이케어에 등록하지 못하는 아동이 많기에 아동 프로그램을 한다면 데이케어 외 아동에게 하는 것은 어떨까?
- 마을에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무슨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알기 위해서 Day Care 활동을 위한 시간 뿐만 아니라 마을에 천천히 머무를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마련 되었으면 좋겠다.

질문

- 라온아띠는 왜 Pugaro에 가도록 권유 받은 것인지, Y는 Pugaro라는 지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라온아띠랑 연결하고 있는지.

평가단 답변 중

- 라온아띠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러 온 것 아니다. 사람들에게 화두를 던지는 것만으로 성공이고 시작이다. / Pugaro는 마을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Day Care를 통해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부모님들과도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마을에 다가가는 것이다. / 푸가로의 경우 타겟 연령을 설정해서 아시안 공통의 창의성을 살린 활동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 푸가로에 위생 교육을 추가하면 어떨까. / 첫 기수의 역할은 초석을 놓는 것, 혹은 초석을 놓기 위해 강에 대해 이해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 등

D, 고민과 토론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in Dumpsite

활동지에서의 고민은 주로 덤프사이트를 둘러싼 어떤 액션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다른 활동지에서 활동할 많은 청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 우리의 고민과 그를 풀어나간 과정을 간단히 공유하고자 한다. 우리 토론의 큰 맥락은 주로 어떠한 액션에 대하여 ‘하자’와 ‘하지 말자’로 나누어진 것이었다.

1. 아이들 손을 씻기느냐, 마느냐?

덤프 활동 초반부터 한 단원은 아이들과 활동 전 함께 기본적인 손 씻기를 하고 활동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다수의 단원들은 원래 그 곳 환경에 적응하여 잘 씻지 않는 아이들에게 우리와 활동 시작 전 손을 씻는 것은 너무 작위적이고 손 씻는 것이 아이들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 같다고 생각해 하지 말자고 결론이 났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과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우리는 생각을 바꾸었다. 지금은 덤프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비누로 손과 발, 얼굴을 닦는 것이다. 많은 아이들이 비누로 닦아 뽀득뽀득 깨끗하고 향기가 나는 자신의 손을 더 좋아했다. 이러한 씻기 활동이 중요한 점은 우리와 함께 시작한 씻기로 깨끗한 몸의 기쁨을 느낀 아이들이 위생 관리의 필요를 깨닫고 나아가 스스로 자신의 기본적인 위생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D, 고민과 토론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in Dumpsite

2. 상처 치료를 하느냐, 마느냐?

지난 달, 팔을 다쳤던 아이 김벌리의 치료에 관여하느냐가 화두가 되었었고, 그 일로부터 Dumpsite에 필요한 의료 활동에 대한 우리의 토론이 시작되었다. 물론 김벌리처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기에 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외부의 도움 주선을 노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라온아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소극적 치료 활동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우리는 아이들 피부에 난 크고 작은 상처들을 꾸준히 보았다.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상처 보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듯 했고, Dumpsite의 위생 환경이 기본적으로 매우 좋지 않기에 한번 생긴 상처가 심하게 번지거나 잘 낫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간단한 치료, 상처를 소독하고 연고를 바르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다. 라온아띠와 함께 놀다가 넘어져 다치는 아이들도 많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와 놀다 다친 상처는 치료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사안도 역시 주민들이 라온아띠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할 경우를 우려한 반대가 있었다. 하지만 6회 가량 아이들의 상처치료가 이루어진 지금,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이었던 마을 주민들도 우리의 활동에 관심과 호감을 가지게 되는 등 관계 형성에 좋은 작용을 한 것 같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심했던 아이들의 피부 상처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 그리고 아이들도 스스로의 상처를 인지하고 돌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본 것이다.

여전히 피부병이 생기기 쉽고, 필요한 의약품을 충분히 사기 어려운 환경에 있기는 하지만, 라온아띠와 함께 하고있는 상처 치료 경험을 통해 아이들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적절한 상처 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을 다시 알고 적절하게 행동함으로써 더 큰 감염이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 특히 마을 아이들이 상처 치료 시간을 통해 보호받고 돌봄 받는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D, 고민과 토론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in Dumpsite

3. 간식을 나누어 주느냐, 마느냐?

활동 초반부터 우리는 몇몇 마을 주민들로부터 먹을거리를 요구받곤 했다. 이곳 사람들에게 음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전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음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알기 전부터, 첫 만남과 함께 음식을 요구받았던 것에 당황해 더욱 이 사안에 대해 식겁을 했던 것 같다. 음식을 가져갔을 때 그 이후 우리 역량 이상의 음식을 요구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요구는 줄어들었고, 우리는 그들이 평소에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는지 알게 되었다. 그렇게 그들의 생활을 알고 유대감을 쌓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다시 음식을 나누는 것의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Feeding' 이라고 불리우는 선행적인 활동의 조심스러움 보다, 아이들과 같이 신나게 뛰어나 후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같이 간식과 물을 나누어 먹는 것이 되니, 고민과 행동의 간격이 좁혀졌다. 또 필리핀 사람들이 간식을 먹을 시간에 라온아띠가 활동지에 머무는 만큼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해야하는 필요도 확인하게 되었다.

하지만 만약 아이들 이름도 몰랐을 때부터, 먹을거리를 들고 찾아갔다면 아마도 그들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몸을 부비고 눈을 맞추면서 관계가 쌓이기 전이었다면, 당연히 그들은 우리가 가져온 것들을 보고 그 물질로써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머리 싸매고 토론했던 사안들을 모두 실행에 옮겼고,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아띠 안에서의 고민과 나눔, 주민들과 보낸 짧지 않은 시간으로 빚어진 관계들, 그리고 우리의 결정과 실행을 여러모로 도와준 Y 식구들. 이 모든 것이 있었기에 그들의 삶에 불쑥 찾아간 우리의 활동이 큰 무리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를 바라볼 수 있는 관계를 만든 것 같다.

E, School to School

BEFORE

: School to School은 라온아띠의 학교 방문 프로그램이다. 지역의 YMCA 회원 학교들을 교류 등 여러 목적으로 방문하던 것에서 부터 End Poverty 캠페인의 일환으로 빈곤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기획되었다.

하지만 라온아띠가 우리의 이야기꺼리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학교들을 방문하려던 School to School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후 라온아띠의 주요 활동지 중 하나인 Bonuan Dumpsite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무지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지역 학생들에게 Dumpsite와 그 문제를 알리고, 라온아띠의 프로젝트 활동에 함께 할 학생을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School to School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Dagupan City내에 있는 공립학교 5 곳과 사립학교 5 곳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서신을 띄웠고, 가장 먼저 방문할 학교로는 YMCA 이사이신 Glicerio Cabanilla께서 교사로 부임하고 계시고 라온아띠와 이미 친숙한 Dagupan City National High School(이하 DCNHS)이 정해졌다.

E, School to School

DCNHS 별관 홀, 2013년 11월 14일(목요일) 오후 2시.

200명의 학생이 초대되었지만 방문 당일 예정에 없었던 행사가 생겨 대략 30-40명 가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라온아띠 소개 : 그동안 라온아띠를 소개해온 딱딱한 방식에 싫증을 느낀 우리들은 크레용팝의 ‘빠빠빠’ 댄스를 준비했다. 확실히 지루한 감은 덜했지만 필리핀 학생들에게 이 춤은 상당히 낯선 모양이었다. 학생들의 얼굴에 재미있다는 표정과 생경해하는 표정이 교차했다. 어쨌든 시선 집중에는 성공!

쓰레기 문제 : 먼저 라온아띠의 End Poverty 캠페인의 일환으로 빈곤에 대해 생각해보는 짤막한 워크숍을 진행한 뒤, 필리핀을 둘러싼 Improper Waste Management 문제를 이야기 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에 들어있는 빈곤의 지점을 이야기했다.

Dumpsite와 라온아띠 프로젝트 소개 : Bonuan Dumpsite, 그리고 그곳에서의 라온아띠 프로젝트를 PPT /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이용해 이야기 했다. 쓰레기 문제, 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빈곤 문제 모두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화제들이었는지 모든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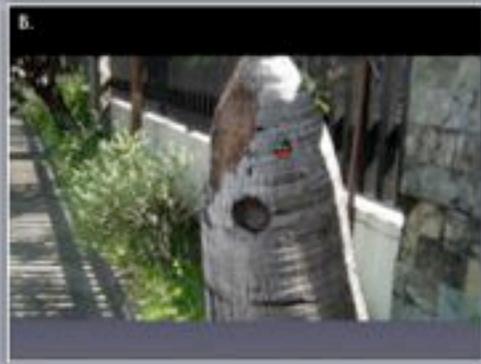
E, School to School

Lecture 진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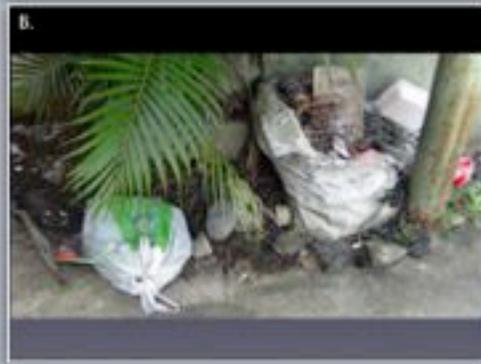
A. Poverty in Korea Suicide rate

Rank	Country	1990	2000	2009	2010
1	South Africa	100	100	100	100
2	South Africa	90	90	90	90
3	South Africa	80	80	80	80
4	South Africa	70	70	70	70
5	South Africa	60	60	60	60
6	South Africa	50	50	50	50
7	South Africa	40	40	40	40
8	South Africa	30	30	30	30
9	South Africa	20	20	20	20
10	South Africa	10	10	10	10
11	South Africa	5	5	5	5
12	South Africa	4	4	4	4
13	South Africa	3	3	3	3
14	South Africa	2	2	2	2
15	South Africa	1	1	1	1

13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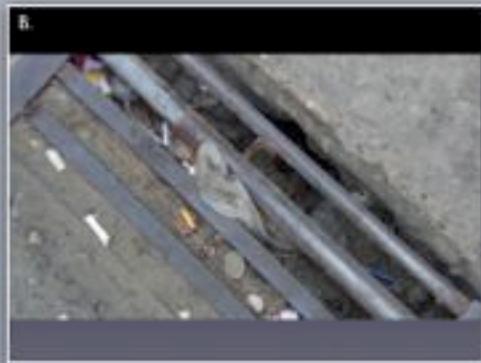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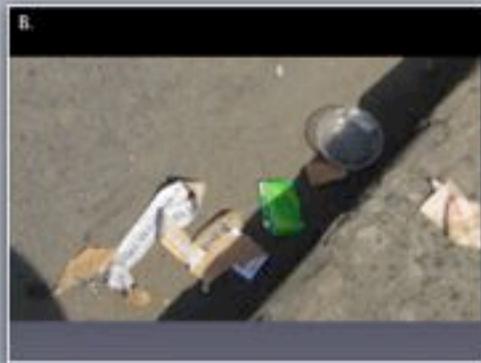
16



17



18



19



20



21



22



23



☆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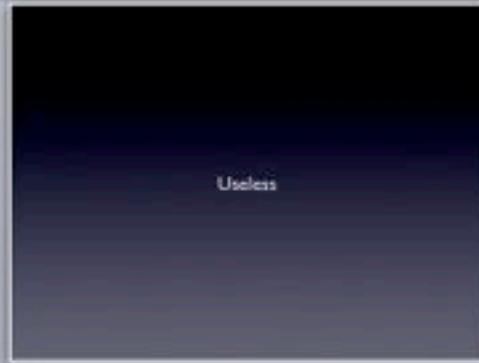
☆

E, School to School

Lecture **진행안**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E, School to School

DCNHS

참여 독려 : 당시까지 계획에 있었던 Dumpsite 내 벽화 사업은 School to School에서 만난 고등학생들 중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자원을 받아 함께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벽화 사업을 소개하고 참여 지원서를 배포했다. (벽화 사업을 취소한 지금도 Dumpsite 활동에 동행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을 이를 통해 만나고 있다.)

당시는 태풍 Haiyan(필리핀 이름 Yolanda)의 영향으로 필리핀의 Tacloban City가 막대한 피해를 입어 전세계가 구호활동과 지원에 나섰던 때다. 라온아띠의 프로그램 홍보/모집이 끝난 후 YMCAスタッフが 마이크를 건네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은 Tacloban City를 위해 모금운동을 진행했다.

본 프로그램이 끝난 후, 라온아띠가 준비한 노래 Hawak Kamay와 포토타임으로 School to School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E, School to School

AFTER

: DCNHS에서의 첫 School to School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었으나, 나머지 9개의 학교에 보낸 서신에 답장이 오지 않아 많은 수의 학교에 방문하려던 계획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YMCA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3개의 학교에 집중하여 라온아띠가 고등학생들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자는 Jimmy 사무총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는 많은 학교를 방문하여 짝막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는 소수 학교에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깊은 관계를 쌓아 나가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F, Jun의 태권도 수업

Jun 단원은 지난달 부터 Dagupan City National High school, Pugaro Integrated School, YMCA 태권도 교실 등에서 태권도 교육을 진행하거나 돕고 있다. Jun 단원이 전하는 팡가시난 태권도 수업 이야기를 들어보자:)

■ 계기

▶10월 7일 사무총장인 Jimmy와의 미팅에서 태권도 수업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대상은 Pugaro에 있는 초-고등 학생들과 YMCA 근처의 Dagupan City National High School 학생들로 결정했다.

▶10월 10일 나와 Allen은 Pugaro 학교에 직접 수업 계획서를 냈고,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3시~5시까지 태권도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10월 22일 나와 Allen은 DCNHS로 이동 후 Kuya June과 함께 봉사단 소속으로 태권도 수업을 도우기로 결정했다. 기존 태권도 수업이 있었는데 11월 14일 팡가시난 겨루기 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대상은 12명 가량)

▶YMCA에서는 매주 외부 정식 교사의 수영 교육과 태권도 교육을 한다. 팡가시난 YMCA에 처음 왔을 때 태권도 수업을 잠시 방문 하고 선생님께 친해졌다. YMCA 태권도 교육 지도 선생님께서 트레이닝 방법이나 아이들의 발차기, 막기, 자세 등을 조언해달라 요구하셨다.



JUN과 ALLEN

F, Jun의 태권도 수업

BRGY. PUGARO INTEGRATED SCHOOL 태권도 수업 모습.

■ 준비

▶ 인터넷에서 태권도 기술용어와 신체용어를 영어로 노트에 적어 놓았다.

▶ 현지어를 할 수 없는 난 Allen에게 통역을 의지 하여야 했고, 통역만 하면 아이들에게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 기본 자세와 막기, 지르기, 발차기를 가르쳤다.

▶ 혼자 40명이 넘는 학생을 관리하기 힘들거라 판단되어 같이 수업을 진행할 도우미를 찾는 중 평소에 나에게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했던 YMCA 자원봉사자 Marlou, Arnel, Deen을 수업 도우미로 선정하였다.

■ 진행

▶ City High : 겨루기 대회를 목표로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다. 코치는 정식 태권도 사부가 아닌 대학교 봉사활동자였고 난 이 팀에 트레이너로 들어갔다. 평소 이 친구들이 하던 방식과 습관을 지켜 보았다. 이 친구들의 좋지 않은 습관들을 고칠 수 있게 조언과 방법들을 알려주었고 효과적인 공격 방법과 방어 기술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따라하게 하였다.

▶ Pugaro : 태권도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다. 진행시 미리 교육시킨 YMCA 자원봉사 친구들을 아이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한 뒤 따라하게 하였다. 매일 평균 50명 이상의 아이들이 모였고, 지난 수업 내용을 복습 시킨 뒤 기본 자세와 막기, 지르기, 발차기 순으로 수업을 진행 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친 기본 기술들을 사용 할 수 있게 품새를 가르쳤다.

▶ YMCA : 지도 선생님께서 진행 하는 것을 지켜보고 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 좀 더 나은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선생님께도 내가 했던 트레이닝 방법들을 가르쳐드렸다.



F, Jun의 태권도 수업

▪반응



▶City High

- ①생각보다 아이들이 나의 설명에 잘 따라왔으며 스스로 좋지 않은 습관들을 인식 한 후 고치려 노력하였다.
- ②발차기 연습에서도 평범한 방식이 아닌 겨루기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을 때 당황은 하였지만 점점 자신의 판단과 반응속도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Pugaro

- ①처음 접하는 아이들은 태권도에 흥미를 갖는 것 같았다. 태권도를 하며 기합소리를 같이 지르며 웃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에게는 진지함이 보였다.
- ②가르친 기본동작을 사용하여 태극 1장을 선보였을 때 아이들은 배운것들을 생각하는 표정을 보였다.
- ③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이 모두 나에게로 몰려와 반갑게 인사를 하였고 배를 타러 가는 길에서도 먼저 다가와 인사를 하였다.



▶YM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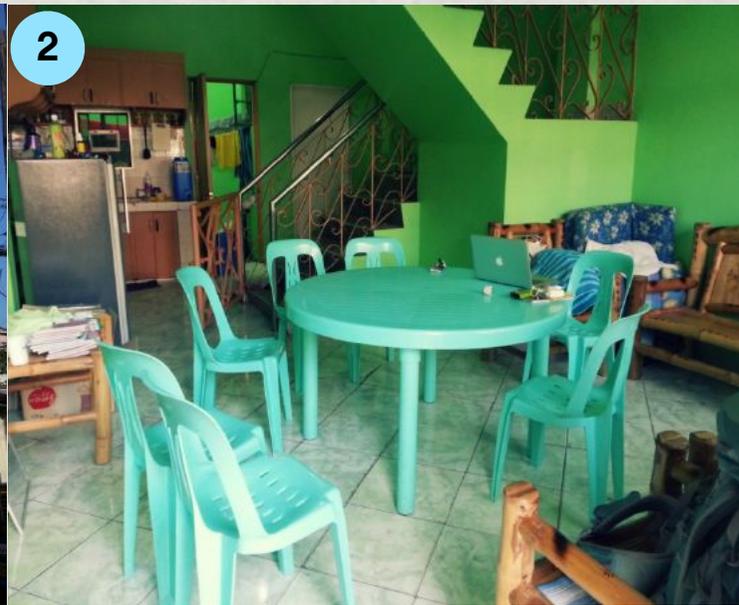
- ①한 번 알려 준 것들을 기억해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하였다.
- ②선생님도 새로운 트레이닝 법을 알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지도를 하실 수 있게 되었다.



G, 먹고 자고 노는 이야기

WELCOME TO RAONATTI HOUSE !

에어컨, 세탁기, TV도 없고 모든 벽면이 녹색으로 가득 찬 아띠 하우스가 처음에는 정말 낯설었다. 이곳에서 지낸 지도 벌써 3달이 훌쩍 지난 지금은 집안 곳곳이 우리의 추억으로 서려 있다. '우리 집' 이라 부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지금, 우리의 숙소 'RaonAtti House' 를 소개하려 한다. _ DAINEX



1. 우리 아띠들이 살고 있는 곳은 샛노란색이 매력 포인트로 사진 건물 왼쪽 부분의 1층, 2층이다. 옆집에는 사진의 kuya를 포함한 4명의 한 가족이 오순도순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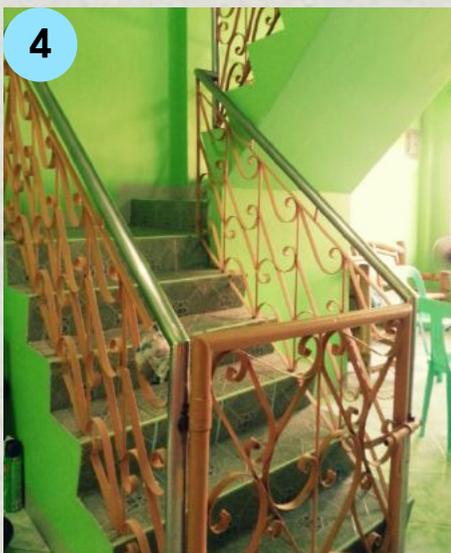
2. 아띠 하우스의 1층! 하늘색의 원형탁자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아띠들의 폭풍회의 공간이 되어 주기도 하고 식사 테이블, 또는 목숨걸고 게임할 수 있는 브루마블의 공간이 되어준다. 같이 살고있는 현지 친구인 Marlou가 자는 곳도 이 곳 1층이며, 부엌과 화장실, 자발적 불편을 실천할 수 있는 빨래터가 있다.

3. 아띠들의 빨래터! 구슬땀을 흘리며 아띠들이 손빨래 하는 공간. 아띠 대부분이 이곳에 와서 손빨래를 처음 경험했는데, 3달이 지난 지금은 다들 나름의 빨래 노하우도 생겼다. 재미있는 점은 이곳이 바퀴벌레의 주 서식지로 추정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몸집이 점점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왜일까.

G, 먹고 자고 노는 이야기

WELCOME TO RAONATTI HOUSE !

4. 아띠들의 모든 것을 엿볼 수 있는 2층으로!



5. 2층은 안쪽에 여자방, 바깥쪽에 남자방, 그리고 베란다가 있다.



6. 베란다! 난간과 남자방의 창문에 노끈을 연결하여 빨래를 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아띠들의 비밀스런 통화장소이기도 하다.



7. 금남의 공간인 여자방! 안쪽부터 Aurora, Dainey, MinAh의 매트이다. Flying cockroach가 나타나는 순간, 여자방의 모든 물건과 Dainey, MinAh는 제일 안쪽에 위치한 Aurora의 매트로 순간이동하며 Aurora는 옷걸이 하나만으로 세스콤으로 빙의된다.



8. 아띠하우스 안의 소규모 덤프사이트를 볼 수 있는 남자방! 현장의 주인공은 Alex다. 같은 방을 쓰고 있는 Jun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자기 자리를 깔끔히 정리한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분명 남자단원의 매트는 붙어 있었는데 우리는 어느샌가 한뼘 정도의 매트 사이의 거리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었다.



G, 먹고 자고 노는 이야기

Aurora's Birthday 11/26

11월 26일 Aurora의 생일 그 하루 전, 우리는 깜짝 생일파티를 계획했다.

STEP1.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주고 아주 소박한 초코파이 하나로 대충 축하해준다.

STEP2. 하루종일 은근히 Aurora를 구박하여 서글프게 만든다.

STEP3. Aurora의 우울함이 절정에 이를 저녁 즈음에 제대로 된 파티를 짠!

우리의 계획을 평가시난Y 사무총장인 Kuya Jimmy께 말씀드리니, 깜짝파티는 사무실이 준비하겠다고 하셨다.



두근두근, 거사를 치루기 전의 마음가짐으로 Aurora의 생일날을 맞았다!

STEP1 실행! 여기서 Aurora가 소박한 축하에 조금은 실망해줘야 하는데, 너무 기뻐했다.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반응이지만 아무튼 뭐 괜찮다! STEP2가 남아있으니까!

STEP2는 어떻게 됐을까? 하루종일 Aurora를 계속 구박해야 하는데 아뿔싸! 필리핀팀 단원들이 다들 마음이 여러 실행하지 못했더라. 하하하.

G, 먹고 자고 노는 이야기

Aurora's Birthday 11/26

그리고 대망의 STEP3. 때는 오전에 활동지에 다녀와 Aurora가 낮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다. Jimmy와 Y Staff들이 상황을 만들었다며 Aurora를 깨워 긴급미팅을 열자고 했다. Aurora를 제외한 아띠들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긴급미팅을 가장한 깜짝 생일파티를 즐기기 시작했다.

곧 Aurora를 위한 우리들의 불꽃연기가 시작되었다. 내용은 이 날 오전, 활동지에서 Aurora가 한 아이의 부모가 오해 할 행동을 해 이 부모가 Aurora가 자는 사이 Y에 찾아와 거센 항의를 하고 갔다는 것이었다.



여기까지는 사실 Aurora도 얼떨떨한 상황이었는데, Dainey가 Jimmy에게 "Is this a big problem?" 이라고 물어본 후, Aurora가 살짝 눈치를 채 버렸다. Dainey의 물음에 Jimmy가 매우 큰 문제라고 답하였고, 왜냐하면 그 아이의 부모가 경찰에도 신고를 했기 때문에 Aurora가 지금 바로 Back to Korea해야 한다는 무리수를 던지셨기 때문이다!

이 후, 10분 정도의 굉장히 어색한 눈치보기 끝에 항의서를 가장한 Aurora의 생일 축하 롤링페이퍼가 건네지고 폭죽이 터지며 연극이 끝났다. 그리고 진짜 생일축하가 시작되었다. 케익과 이곳에서 Long Life를 의미하는 축하 음식 Pancit을 나눠먹으며 모두 Aurora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생일이 지나간 후에도 며칠동안 Aurora는 집을 싸서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는 Y 친구들의 장난을 들어야 했다.

G, 먹고 자고 노는 이야기

MEATLESS BREAKFAST!

9월 한달 동안 팡가시난에서 생활하며 주는 밥만 먹다 10월부터는 아띠들이 아침을 지어 먹기로 했다. 막상 아침을 만들기로는 했는데 아침 메뉴를 생각하니 막막한 아띠들...

“우리.. 내일 아침 뭐 먹을까?” 그동안 밥을 먹을 때 고기가 거의 빠지지 않는 밥상을 보며 우스갯소리로 “여기선 Meatless Monday를 실천하긴 힘들겠다.” 라고 말했던게 생각났다. “그럼 우리 Meatless Monday 해볼까?!” 하지만 점심, 저녁을 주로 Y에서 먹는 아띠들은 점심, 저녁에 대한 메뉴 선택권이 없다.

그 때 한 단원이 “그럼 월요일 세끼를 쪼개서 우리가 요리할 수 있는 월, 수, 금 아침으로 할까? 주말엔 기력 보충해야 되니까 고기 먹고.” 라는 제안을 하였고, 일동 “올~~~” 이라며 칭찬해 준 뒤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Meatless Mon. Wed. Fri. Breakfast!를 시작했다.

Meatless Monday?

인간이 살아가는 땅의 80%가 인간이 고기를 먹기위한 동물 사육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미 아마존 열대우림의 70%가 파괴되어 동물 사육지나 사료용 곡물재배 농지로 사용되고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주일에 하루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고기를 먹는데 발생하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한 실천 행동으로 350PPM 캠페인의 일환이다.



알고있나요? 350PPM!

상승한 지구의 이산화탄소 양(400ppm 수준)을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350ppm으로 줄이자는 전세계적 기후 변화 대응 환경 캠페인.

1주일에 하루! 고기를 안 먹으면?(연간통계)



차 500만대
스톱 효과(영국)



온실가스 배출량억제
(1인당 2268kg의 CO2 감축)



물부족 문제 해결
(1인당 13만 2천4백리터 절약)



축산업의 기후변화
기여도 51% 이상
(2009 월드워치보고서)

자동차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보다 고기 소비를 반으로 줄이는데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더 효과적!

채식식단은 비프스테이크 한 접시에서 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분의 1!

- 2007 노벨평화상 수상 라젠드라 파차우리

출처 : 고기없는 월요일 (www.meatfreemonday.co.kr/)

G, 먹고 자고 노는 이야기

MEATLESS BREAKF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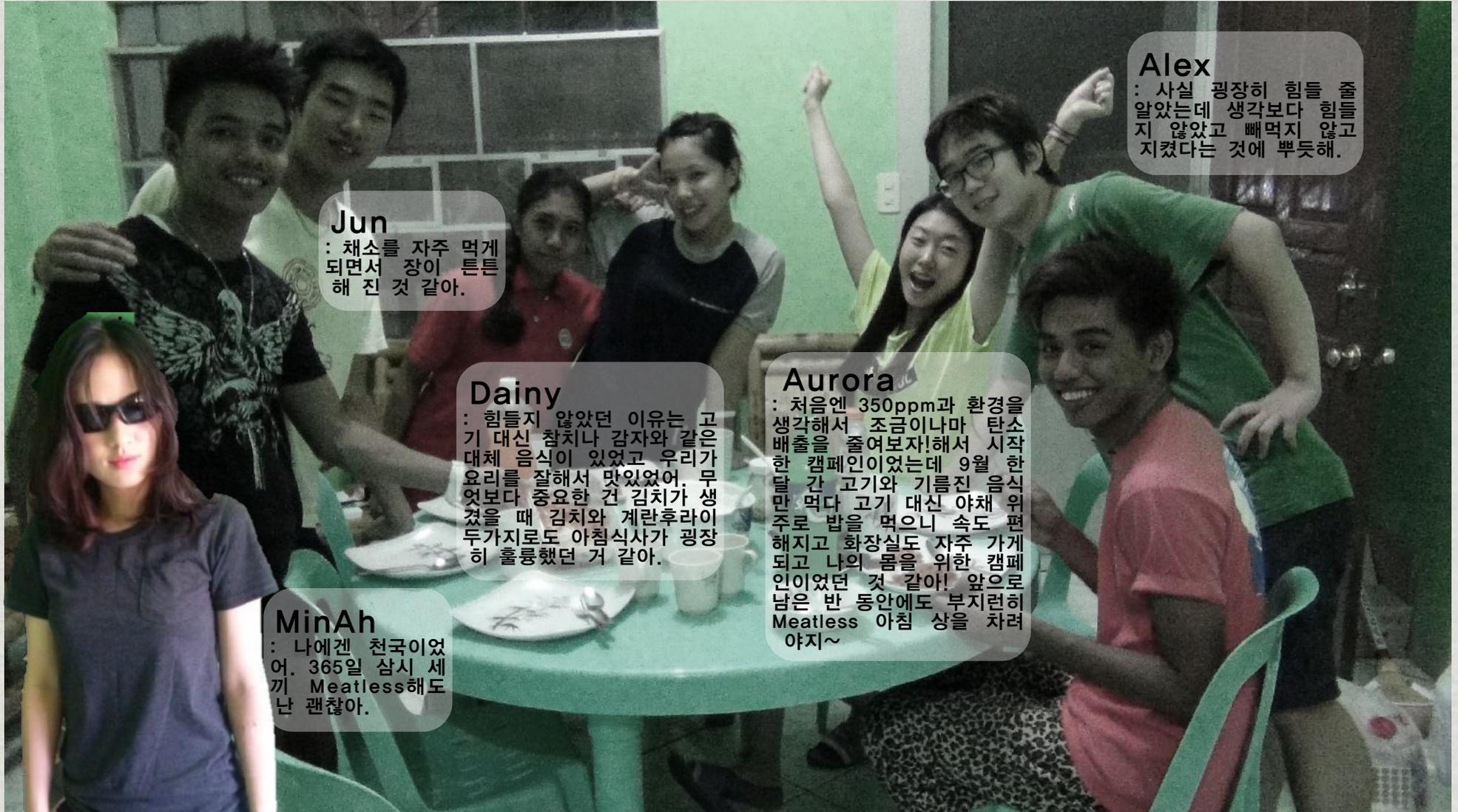
라운아띠 Meatless 아침 밥상



G, 먹고 자고 노는 이야기

MEATLESS BREAKFAST!

Meatless Breakfast를 하면서.



Jun

: 채소를 자주 먹게 되면서 장이 튼튼해진 것 같아.

Dainy

: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고기 대신 참치나 감자와 같은 대체 음식이 있었고 우리가 요리를 잘해서 맛있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김치가 생겼을 때 김치와 계란후라이 두가지로도 아침 식사가 굉장히 훌륭했던 거 같아.

MinAh

: 나에겐 천국이었어. 365일 삼시 세끼 Meatless해도 난 괜찮아.

Alex

: 사실 굉장히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고 빼먹지 않고 지켰다는 것에 뿌듯해.

Aurora

: 처음엔 350ppm과 환경을 생각해서 조금이나마 탄소 배출을 줄여보자!해서 시작한 캠페인이었는데 9월 한 달 간 고기와 기름진 음식만 먹다 고기 대신 야채 위주로 밥을 먹으니 속도 편해지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나의 몸을 위한 캠페인이었던 것 같아! 앞으로 남은 반 동안에도 부지런히 Meatless 아침 상을 차려야지~

“내일 아침은 뭐야? 마녹(닭) 먹고싶다~~” “내일은 미트리스야. 내일만 참아 모레 아침에 마녹요리 해줄게 T.T 우쭈쭈 착하다~~” 이렇게 우린 때로는 먹고 싶은 것을 기다릴 줄도 알며 Meatless Mon, Wed, Fri, Breakfast를 열심히 실천 하고있다.(오늘 아침엔 계란 토스트 먹었어요.)”

- AURORA

안녕?! 애들아? 나야 오라루. 잘 지냈니? 반가워ㅋㅋ 오우 쑥스럽군. 지금 민아는 고등학생들과 다큐멘터리 수업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연이는 생각을 정리하는 다이어리를 쓰고 있고, 다희는 '반을 지났다' 다이니의 이야기를 풀어 내고 있고, 진경이는 이 글을 쓰는데 뒤에서 뭐 쓰고 있냐고 음흉하게 웃으며 힐끔힐끔 거리고 있고, 나는 못 보게 이 편지를 겨우겨우 쓰고 있네.ㅋㅋ어차피 보겠지 만... 그래도 지금은 쑥스럽단 말이야!

애들아,,, 오늘 하루는 어땠어?! 힘들진 않았니? 컨디션은 어때? 배는 안고파?
우리 벌써 함께 산지 3개월이 넘었네. 이번 달 보고서 편집 회의에서 '반을 지나면서' 섹션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야 할 지 막막했지만 하나는 확실했어. 우리 가족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처럼 누군가와 함께 먹고 자고 놀면서 하루를 함께 시작하고, 하루를 함께 하고, 하루를 함께 마무리하고, 이런 적이 없었어. 군대를 가지 않는 이상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처음엔 서툴러서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 민폐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다음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민폐가 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맞춰나가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말하길. 그리고 우리들도 얘기했던...

“우리 다섯은 달라도 너무 달라” “어떻게 이렇게 다른 다섯 명이 모였지?”

나는 말이야,,, 그래서 좋아 우리가. 너무 잘 맞으면 재미없잖아?!ㅋㅋ다를 땀 너무 달라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더디기도 하지만 각자의 매력이 폴폴 넘치는 우리 팀과 살면서 이것저것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해.

'Music is my life' 진경이랑 같이 음악 들으며 이야기하기. 다희랑 무한도전 보면서 배 찢어지게 웃기. 민아랑 소박하게 급 맥주 한잔하기. 연이랑 사이좋게 달달한 초코 잼 퍼먹기.

H, 각자 쓰는 글, 반을 지났다.

Aurora_김보경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해. 그냥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살 맞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 생애 이런 날이 또 올까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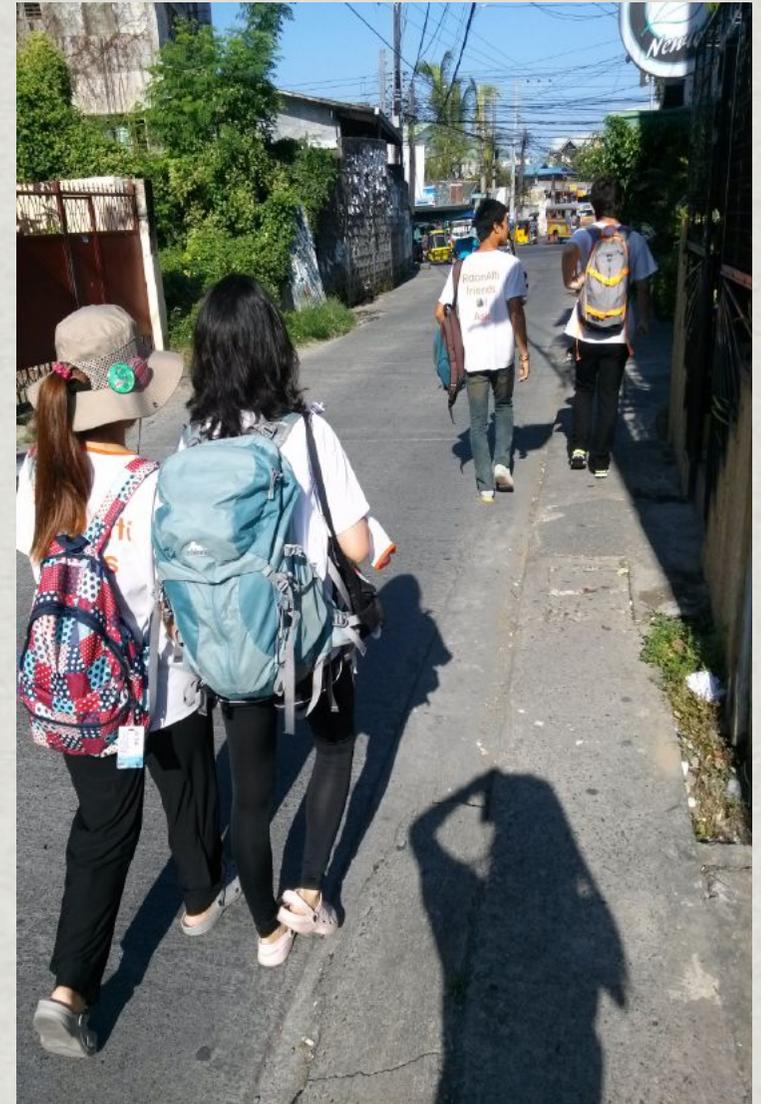
지난주에 드디어(?) 다희 까지 아프면서 우리 다 한번 씩 돌아가면서 아팠다. 그치?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 몸은 힘들면 아픈 티가 나지만 마음이 힘들 땐 아픈 티가 잘 안 나잖아. 반을 지나며,, 각자 마음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거 같아. 나 역시도 그랬고. 힘들어 보였을 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지만 그냥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겠다 싶어. 앞으로 남은 반 동안 혹여나 마음이 힘들 땐 티를 팍!팍! 내줘. 같이 이야기 나누자.

부지런히 말 보단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경이, 귀를 쫑긋 세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마음으로 듣는 다희,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을 균형 있게 잡아주는 민아, 선뜻 하기 힘든 일들을 무심한 듯 세심하게 해내는 연이. 이 안에서 나는 보고 듣고 느끼며 많이 배우고 있어.

반이 지난 지금 서로 다른 크고 작은 돌맹이 다섯이 만나 깎여 나가며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의 남은 반 동안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기다려지며...

민아야, 연아, 진경아, 다희야, 항상 사...사...살라맛뽀!!
Mahal kita! 쪽쪽3

*Salamat po:감사합니다.
*Mahal kita:사랑합니다.



독립기념일-처음으로 다섯이서 걸어 간 날에
-매일매일 보아도 사랑스러운 나의 가족에게.
우주 최고 마간다 오로라가. 팡가시난에서.

H, 각자 쓰는 글, 반을 지났다.

Aurora_김보경

다들 잘 지내시죠?! 팡가시난에서 지내면서 이맘 때 즈음, 이 시기엔 다른 아띠들은 어떤 생각과 고민들을 했을까 궁금 할 때마다 이전에 살았던 그리고 지금 다른 마을에서 살고 있는 아띠들의 월별 이야기를 보고해요.

분명 여기 오기 전에도 봤던 글들인데 이제 보니 다시보이고, 전에 이해 못 했던 글들이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하고, 그 글 속에서 저의 생각을 되짚어보기도 하고, 놓쳤던 부분이 채워지기도 하고...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도 하고, 마을은 다르지만 함께하고 있는 아띠들의 이야기를 보고있으면 글만 읽어도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고민 그리고 마음들이 느껴지는게 바로 옆마을에서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활동하다 보면 국내 훈련과 출국 전 만남을 통해 나눴던 이야기들이 떠올라요. 가기 전 호기심에 이것저것 물어봤을 때 “우선 가서 살다보면 알게 된다” “그리고 빨리 돌아와라. 갔다 와서 이야기 하자.” 그래요.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있어요. 왜 이런 말들을 해주었는지. 남은 시간동안 잘~ 살다가 이야기보따리 양 손 가득 들고 갈게요. 우리 10기 친구들도 몸 건강히 지내다 만나요.

돌아가면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면서 못 다한 이야기 나눠요 우리! :D 보고 싶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나의 동반자들에게.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고 있는 오로라가. 팡가시난에서.



H, 각자 쓰는 글, 반을 지냈다.

Alex _김연

1. 끝이 정해져 있는 해외생활이라는 자각은 행동하는 이모저모마다 한 생각 더 하게 만든다. 뭘 보더라도 잊힐세라 훑아보고 뜯어보는 버릇이 생겼다. 물건을 살 때에도 이 곳에서만 살 수 있는 걸 사는 데에 집중했다. 그렇게 풍경을 붙잡고, 냄새를 붙잡고, 맛을 붙잡으면서 제한된 5개월 동안 내 몸에 이 곳의 모든 디테일을 최대한 박아넣기 위해 애썼다.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여기서 계속 눌러 살 것처럼 참 많이 적응한 것 또한 사실이다. 눈썹과 눈꺼풀로 대답하는 이 곳 특유의 바다랭귀지와 필리핀 특유의 개그코드 등이 더 이상 낯설지 않고,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걸 나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이제 돌부리에 발이 걸려도 “엄마야!”가 아니라 “Ay!!!”라고 소리를 지른다. 이제 햇바닥 모양의 소시지를 찹찹거리며 먹을 수 있고, 필리핀의 기다란 쌀의 고소함이 익숙하고, 게이들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살가운 인사를 건넬 수 있다.

2. 활동을 돌아보면, 이룬 건 그리 많지가 않다. 적어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다.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건 번번이, 정말 번번이 내 예상을 빗나갔다. 작은 사업 하나를 하려 해도 예측과 다른 현실과 맞서 싸워야 했고, 수많은 사전대화와 준비가 필요했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은 매번 새로운 얼굴로 찾아왔다. 새삼 세상 곳곳에서 인간이 이룬 성과들이 경이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그런 괴로운 시간들 덕분에 배운 건 많았다. 말하는 방법, 일에 임하는 마음가짐, 내가 가진 단점 등등.. 라온아씨의 진정한 타겟은 파견국에 사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런 경험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우리들이 아닐까, 새삼 그렇게 느껴졌다.

3. 무던 인간의 감각으로는 별다른 계절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지만 여기서도 꽃들은 그 동안 예민하게 때를 알고 피고 지고 했다. 9월에 골목길을 수놓았던 꽃과 11월의 꽃이 달랐고 두달 전 시장의 과일과 오늘의 과일이 달랐다. 한국에서 람부탄을 마주한다면 과거 필리핀에서 적응되지 않아 어리둥절했던 9월을 떠올릴 것 같고, 수박과 망고를 보면 지금의 심상을 떠올릴 것 같다.

4. 중간이 지난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난 정말 한국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지냈다. 모국에게 불효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곳 생활, 참 매력적이다. 한국이야 어차피 돌아갈 거, 그냥 이 곳을 더 찼하게 느끼면 되지 않을까?^.^ 끝.



H, **각자 쓰는 글**, 반을 지났다.

Jun _박진경

중 간 을 마 치 며



출국전 미래의 나에게 생각 없이 썼던 **편지**가 중간을 마친 나에게 무척 감명 깊게 받아들여졌다. 마치 나를 꾸준히 관찰하던 사람이 전해준 것 처럼.. 처음 '라운아띠' 를 지원했던 나와 출국 전의 나를 **다시 상기**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다.

H, **각자 쓰는 글**, 반을 지났다.

Jun _박진경

한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타임머신**을 타고 외적 요소들 없이 생활 할 수 있게 해 주는 RaonAtti 프로그램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중간을 넘어선 지금의 난 나의 목표가 거의 바뀌었다. 출국 전 ‘첫 기수이고 잘 해야 돼!’ 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갔지만 그건 옳지 않았다. 현지에서 잘 생활하고 친구를 사귀다. 즉, 심적 부담감 없이 여기 생활을 즐기고 잘 살다 돌아가면 그게 최고의 RaonAtti(좋은 친구) 이지 않을까 한다.



H, **각자 쓰는 글**, 반을 지났다.

Jun 박진경



우리 필리핀팀은 **나나노**팀이라는 또 다른 팀 이름이 있다. **나**랑, **나**랑, **노**을자!

첫 기수라 우리는 주 활동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우리를 알릴 필요가 있었다.

빨리 친해지기 좋은 것은 역시 **노는 것!** 장소를 불문하고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대성공인 것 같다.

집으로 갈 때마다 우리가 멀어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다음에 또 와달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며 난 우리의 주 활동지를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고 우리의 활동이 2달 밖에 남지 않아 무척 아쉽게 느껴진다.

끝.

H, 각자 쓰는 글, 반을 지냈다.

Dainey _선다희

수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던 9월, ‘내가 전생애 무슨 덕을 이리도 많이 쌓았길래, 이 곳 필리핀에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반겨주는 것일까.’ 라는 생각으로 얼떨떨한 한 달이 그렇게 지나갔다. 그리고 10월. 활동지에서서의 방향을 잡지 못하여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바다 한 가운데 우리 팀의 배만이 홀로 둥둥 표류하는 느낌이었다. 이 때 나는 그저 냇 놓고 구조선이 오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11월. 정신을 차리고 나 자신에게 많은 물음을 던졌다. 그토록 간절했던 라온아띠 합격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던 나. 이곳에 처음 왔을 때,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행복해서 매일 일기를 썼던 나. 현지 친구들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애썼던 나. 그랬던 나는 어디로 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활동지에 갈 생각에 일찍이 피로해져 몸을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왜 이제는 그들이 먼저 다가올 때도 슬그머니 피해 나 혼자만의 시간을 그토록 원하는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지만 나는 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하였다. 그리고 11월 중순. 중간평가를 통한 간사님과의 상담, 팀원과의 대화로 내가 이곳에서 어떤 역할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느정도 답을 찾을 수 있었다.



H, 각자 쓰는 글, 반을 지났다.

Dainey_선다희

중간평가 때만 해도 ‘너 스스로 변화한 점이 있는 것 같느냐?’ 라는 간사님의 물음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나 자신의 변화가 딱히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 나는 내 안의 작은 변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루에도 수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한다. 우리가 아무래도 쉽게 눈에 띄는 존재들이라 그런지, 많은 필리피노들이 우리를 보고 먼저 인사를 하기도 하고 우리도 항상 씩씩한 목소리로 먼저 인사를 건넨다. 한국에서 평생동안 할 인사를 이곳에서 5개월 동안 살면서 다 하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인사가 생활화되어 있다. 솔직히 처음에는 FRIENDS OF ASIA라고 크게 쓰여진 라온아띠 티를 입고 다니면 몸이 아프건, 기분이 안 좋건 간에 항상 환한 미소를 띠고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해야만 할 것 같은 강박관념 비슷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수 많은 사람들과 인사하는 것이 힘들었던 날은, 일부러 모자를 꼭 눌러쓰고 다니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 전, 활동지 푸가로를 갔다 오면서 역시 많은 주민들과 인사를 하며 걸어 가는데 순간 내 얼굴에서 느껴지는 미소가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부자연스럽게 양쪽 입꼬리만 슬쩍 올라간 미소가 아니라, 반달이 되어 있는 두 눈과 깊은 팔자주름을 느낄 수 있는 미소였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 나 자신도 정말 놀라서 같이 있던 보경언니에게 ‘언니, 나 이제 인사하면서 정말 나도 모르게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 옛날엔 안 그랬는데.. 참 신기하다 ‘라고도 말했다. 한국에서라면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새로운 나를 발견한 기쁨이었다.



H, 각자 쓰는 글, 반을 지났다.

Dainey _선다희

그리고 이곳에 오기 전, 한국에서 전 기수 아띠들에게 ‘그 곳에 가는 너희들이 참 부럽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다. 하루하루가 다시 소중한지니, 요즘 들어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곳에서 산 날보다 한국으로 돌아가기까지 남은 날이 훨씬 짧아진 나는 벌써부터 다음 기수 아띠들이 너무나 부럽다. 우리와 깊은 관계를 쌓은 Y식구들, 지금도 보고 싶은 푸가로, 덤프 사이트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우리 팀이 아닌 다른 얼굴들의 아띠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잘 상상되지 않지만, 그들도 이들과 함께 멋진 이야기를 펼쳐낼 것이다. ‘DAINEY PANGIT!(다희는 못 생겼다!)’ 이제는 심심하다 싶으면 하는 이 장난스러운 말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요즘엔 하루에도 몇 번씩 쉽게 울적해진다. 나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무조건 좋은 관계만 원했던 처음과는 달리, 지금은 모난 모습도 숨기지 않게 되었고 기분이 상했을 때는 기분이 나쁘다는 표현도 스스로럼 없이 하게 되었다. 짧은 단기간의 만남이 아닌 이상, 항상 서로에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며 넘어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이렇게 지지고 부을 수도 있는 사이가 되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고 서로를 더 깊게 알게 되어 그만큼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중간평가 때 들었던 인상 깊은 말이 있다.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관계라고, 항상 관계를 소중히 하라는 말이였다. 이별의 슬픔은 아직 이른 감이 있으니 좀 제쳐두고, 한국에 돌아가서 후회하지 않게, 이들과 살 맞대고 살고 있는 지금에 더 집중해야겠다. 내일도 KUYA JIMMY가 환한 얼굴로 우리를 반겨 주시고, EMER는 게임을 하고, ALEN은 인사 대신 DAINEY, PANGIT 을 외치며, 덤프 사이트에서는 한 명 한 명 모두 눈에 선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겠지.

끝.

H, 각자 쓰는 글, 반을 지냈다.

MinAh _우민아



- Dumpsite는 격리된 공간이 아니다. Dumpsite도 그 속의 삶도 도시와 함께 존재하며 도시에 사는 누구나 쓰레기 더미와 함께하는 삶에 지분이 있다. 이 당연한 진술을 제대로 알기까지 3개월이었다.

- 처음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던 Dumpsite에서 나는 먹고 뽀뽀하고 뒹굴대며 지낸다.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근황을 알고 그들도 나를 안다.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감지했던 첫 인상도 명칭하게 다 틀렸다. 당연히 누구와도 같은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며 쓰레기에 대한 감수성이라면 다른 것 같다. 계속 지내다 보니 쓰레기랑도 친해진다. 나도 쓰레기에서 생계를 얻기로 마음 먹는다면 또 다를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사귀 친구들을 좋아하고 그들도 나를 좋아한다. 무시무시했던 파리떼도 간혹 아이들이 들고다니는 작은 동물의 사체도 더이상 가슴에 충격적 진동을 주지 않는다. 주말에 놀러가고 싶은 곳이 되었다. 재미있는 일이다.

- 실컷 사랑하고 실컷 사랑받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와중에서도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이 남아있고, 때로 그것에 바들바들 떠난다. 미안하지만, 나쁘지 않다. 다만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젊은이가 되자는 게 목표다.

- 첫 달은 환대, 둘째 달은 적응과 일상화, 셋째 달은 지루함이었고 넷째 달은 변화 시도 이지 않을까. 다섯째 달이 자포자기 아니길. 포기만 아니면 뭐든 즐거울 것이다.

- 방관, 무책임, 기만과 같은, 치를 떨던 악덕에 대해 다시 바라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럴리 없기 때문이다. 좌절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 원만함의 탈을 쓰고 정말 안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도망갈 수 없는 관계들 안에서 두달 반의 끈적한 시간을 보냈다. 원만함의 환상을 경계하면서도 매혹을 떨치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안녕해지지 못하는 작금의 욕심이 이 시기를 통해 간절해 질 것이다. 섬처럼 살고 섬끼리 손잡고 섬이 가라앉고 더 크게 솟아오르고 하는 그림을 그려본다. 결국 믿는대로 살 뿐이다. 나의 지형도를 그리고 최대한 간절히 하면서 그것에 게을러지지 않기를.

H, 각자 쓰는 글, 반을 지났다.

MinAh _우민아

- 말은 별 힘이 없다. 말이 실패했을 때는 말이란게 참 허무하고 쓸모없다는 생각을 해 말을 말아야지 한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을 쓴다. 그리고 활동지에 가면 한 마디라도 더 듣고 이 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고 싶어 애달파진다. 현지어를 잘 하지 못하는 내가 슬프기까지 한다.

앞으로도 의지하고 살 말이 많다. 잘 통하는 말, 중간 통하는 말, 안 통하는 말, 그리고 말이 아닌 소통을 다 십분 이용해가며 살고 있는 이곳의 생활이 나에게 줄 것은 말에 대한 통찰이길 바란다.

- 나를 자라게 만드는 것은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미소와 평온함이다. 아이의 꾸밈 없는 웃음부터 노인의 깊은 미소까지 눈을 감지 않아도 이 곳 친구들 얼굴이 떠오른다. 이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지금은 나에게 큰 복이다.

그렇기에 때로 감옥처럼 느껴지는 환경도, 이런저런 문제들도 여길 떠나고 싶게 만들지는 않는다. 나는 잘 왔고 잘 지낸다. 아직 투덜덜 일 많은 내가 당장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주머니에 차곡차곡 넣어놓고 언젠가 꺼내 볼 평온의 재료를 한 가득 얻은 것이다.

- 어색함의 강물을 힘겹게 건너고 있는 나를 안아주는 것들에 감사하며.



나의 스승인 미소천사님들!
Mark, Lailyn, Ramcel



1, 다음 두달은

12월

Dumpsite

- 아동 개인 위생 교육 / 상처 치료 지속
- 친해지기와 놀이 단계 넘어 숫자, 언어 등 교육
- 아동 연령 분리
- 성인 수업 지속 추진
- 마을 서베이, 아동 신상 카드, 마을 이야기 수집, Compound 지도 등 지역 정보 자료 수립
- Red Cross, City Health Office 등 지역 기관과 함께 Health Program 진행 추진

- 지역 학교 방문을 통한 Dumpsite 알리기
- 지역 고등학생, 대학생과 활동 동행
- 12/21 Merry Christmas Blue House!

Pugaro

- Day Care 보조 마무리
- 지역 청년들과 함께 지역 알기
- Pugaro 활동 및 자료정리 완료

기타 활동

- MinAh : DCNHS 미디어 아트 전공 수업 보조
- Jun : DCNHS 태권도 수업 마무리

1월

- Malasiqui Brgy. Canan Sur로 이사.
- 단원 별 홈스테이.
- 단원별 활동
 - Alex : Mother' s Club 조직
 - Aurora : Canan Sur Day Care 보조
 - Dainey : Day Care Feeding Program
 - Jun : 유기농업 및 대안 비료 만들기 사업
 - MinAh : Canan Norte Highschool 저널리즘 반 운영
- Dumpsite 주 1회 방문

- 북부 Luzon 지역 여행

- MinAh : DCNHS 미디어 아트 전공 수업 보조

J, 가족사진



J, 가족사진



J, 가족사진



HOUSE

감사합니다.
Balbaleg ya Salamat!
12월 보고서로 만나요



FIN. FIN.
FIN. FIN.
FIN. FIN.